

“전북을 자율주행 글로벌 거점으로”

(상용차)

전북과학기술위원회의 자동차 기계분과 회의 개최 “새만금, 4차 산업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 최적지”

새만금을 상용차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4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자동차·기계분야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도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자동차·기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산대 자동차기계공학과 최규재 교수, 자동차부품연구원 정도현 본부장,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문남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용차분야가 특화돼 있는 전북도 자동차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연계한 자율주행 플랫폼(테스트베드)을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상용차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자동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험하는 것은 기존도에서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도로, 건물 등 형태를 갖춘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 하는게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은 새로운 실증단지(테스트베드)로서 최적지라는 판단이다.

33킬로미터의 방조제 하부에 잘 정비된 새만금 수변도로,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내부를 잇는 동서 2축·남북 2축 도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물류와 연동하면 상용차 자율(군집) 주행의 기술실증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가 된다는 설명이다.

신규 어업인 후계자 실무교육

전북 수산기술연구소는 올해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발된 신규어업인후계자 등 80명에 대해 26일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산업경영인 신규후계자 뿐만 아니라 전북도에 귀어를 희망하거나 귀어 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희망자도 실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도내 어업인간 소통과 정보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어업인 안전조업 및 통신 장비 운용법, 양식장 수질 및 환경관리, 패류양식 생산성 향상 방안 그리고 해양수산정책자금 활용 등 실무적인 과목위주로 내실 있게 편성했다. /인재용 기자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홍보

송하진 지사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단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스카우트 리더 총회 개최식에 참석해 스마트 잼버리를 홍보하고 있다.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술은 연구 및 실증, 상용화,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항만·공항 등 물류 접근성, 기존 산업지원 혁신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요소로 새만금 지역은 이들 여건을 만족하는 우수한 국내의 최적지다.

새만금을 활용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플랫폼 구축이 용이해 국내업체의 다양한 실험과 글로벌 기술선도 업체 유치와 노하우 접근을 통해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있고 상용차 완성업체 2개사(현대, 타타대우)와 부품,특장기업이 집적돼 있어 산업육성을 위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상용차 자율주행기술은 현재 전북에 구축된 훌륭한 기반여건에 센서, 통신 및 인공지능 등을 결합한 자율주행기술로서 향후 2035년까지 25% 이상 확대될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북도에서 생산한 상용차 자율주행 트럭이 향후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수송망으로 등극할 것이란 전망으로, 통일을 대비한 우리나라의 물류체계에서 한반도를 통과해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상용차 자율주행의 ‘드림실�크로드’ 구축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선공약 핵심 사업으로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상용차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으로 진화하고 있어 향후 물류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하위권

미세먼지 원인 국외 70%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까지 5개월 동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전북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도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국외의 미세먼지(중국의 산업단지와 사막지역)의 영향이 70%, 나머지는 도내 자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발생 요인은 정체성 기류, 측정소 주변의 높은 사업장 분포, 밀도 높은 도로망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상은 전북의 풍속이 충북, 경기 다음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정체성 기류로 확인됐으며, 고농도 발생

시 높은 고도의 풍향은 서풍계열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전북의 서부권이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고 도로망이 밀집돼 있으며, 측정소 반경 2 km이내에 사업장 분포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먼지 및 VOCs 관리 감독 철저, 물질소차량과 진공청소차량 확보, 청소 횟수 확대로 도로 비산먼지 제거, 국비확보를 통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유도도 배출량 감소 등을 도 정책에 제안한다”며 “도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노천소각 및 농업잔재물 소각 지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5월 연휴, 해외여행 시 감염병 주의 당부

전북도는 5월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도민들에게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해외여행 시에는 해열제, 지사제(설사약), 소화제, 반창고, 물파스, 알코올 솜 등 간단한 비상약을 반드시 준비하고,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방문 지역별 주요 발생 감염병에 대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국 4~6주(최소 2주)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 및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감염병에는 예방접종이 가능한 감염병인 황열, 말라리아(예방약), A형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수막구균성 수막염, 폴리오, 파상풍 등이 있으며 방문 최소 2주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백신이 따로 없는 감염병에는 Dengue,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며 이 질병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건강안전수칙을 지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도선관위, 교통불편지역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교통편의 제공 대상지역은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도내 전체 615개 투표구 중 242개 투표구가 해당되며, 370개(2,778개 마을) 노선에 총 902회를 셔틀버스나 승합차 등으로 운행한다.

교통편의제공 중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도선관위 위원회 함께 동승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 인권센터,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자 인권교육 실시

전북도 인권센터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관리자 집합교육은 도 인권센터 개소 이래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교육은 첫날은 시설의 대표인 시설장을 대상으로, 둘째 날은 사무국장,

마지막 날은 시설의 중간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4일 실시한 1차 교육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천수 인권센터장등 당부사항 전달에 이어 강사로 나선 김병용 인권활동가의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교육으로 이어졌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포스트 차이나’ 인도 수출길 열어

도내 중기 클테이너사, 인도기업과 저온저장고 150만불 수출 계약 체결

전북 도내 중소기업인 (주)클테이너사가 24일 도청 12층 브리핑실에서 주력상품인 저온저장고로 인도 기계유동기업인 GMT 엔지니어스사와 15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 3월 추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서 인도 바이어와 클테이너사를 1:1 매칭 지원한 결과로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 시장가능성을 확인하고 발 빠르게 대처한 전북도의 깊은 성과다.

(주)클테이너는 1992년 설립 초기 3명의 소규모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제품 R&D에 주력해 저온저장고의 성능과 에너지 소비효율을 대폭 향상시킨 우수한 기술력으로 캐나다, 미국시장 등 세계 각국에 진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이다.

또한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등 수출지원사업에 매년 참가해 2009년 베트남에 첫 수출을 시작으로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기도 하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글로벌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지역 수출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국,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클테이너 같이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분야별로 R&D, 인증, 해외마케팅 등 종합적인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진원 흥용용 원장은 “불안한 중국 시장 대신 포스트-차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